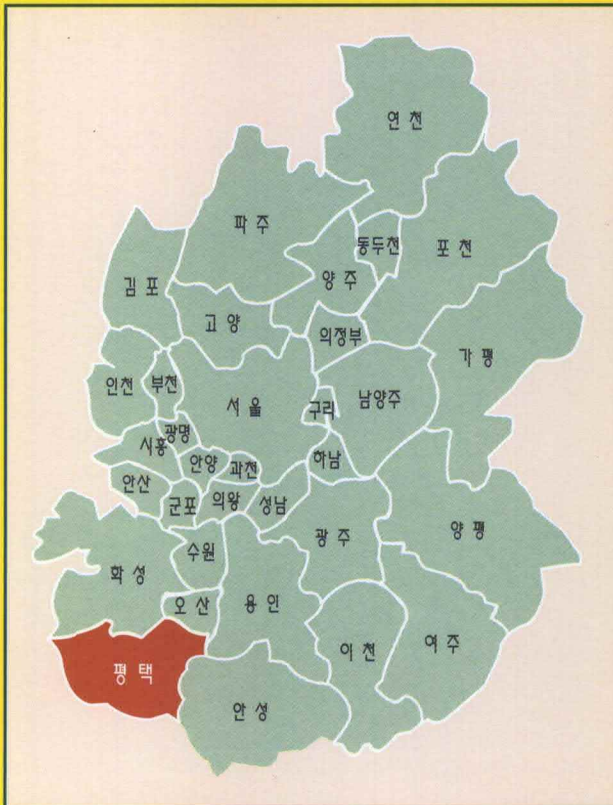


# 평택시

동령샘재 즐다리기(지신밟기)

평택농악놀이

평택고리두레박놀이에 논매는 상사대소리



# 동령샘제 줄다리기(지신밟기)

## 1 전승지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

## 2. 유래 및 해설

이충동 동령마을은 아직도 전통이 살아 숨쉬고있는 마을이다. 요즈음에 각 마을마다 서구문물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의 전승 만속이 쇠퇴하며 소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령마을은 아직도 줄다리거나 샘굿은 물론, 가신 신앙인 터주, 업 제석 등을 볼 수 있다.

이충동 동령 마을에서는 정월 초진일(첫 용날)이 되면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한 개 혹은 2~3개의 공동우물이 있어 마을전체의 식수원으로이용하였기 때문에 자연 물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물과인 간과의 관계는 절대 절대적일 수 밖에 없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이기에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마르거나 홍수로 인해서 물이 탁해지면 자연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초나 칠월칠석 등 길일을 택하여 우물을 깨끗히 청소한후에 수신인 용왕에게 기원하여 7년의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않고, 9년 장마.홍수에도 물이 깨끗하기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긴 시간을 전해지던 물에 대한 전통은 상수원이 보급된 요즈음에도 남아 있어 물을 사용하던지 안하던지 샘굿을 거행하고 있다.

샘굿을 거행할 때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마을의 농약대가 샘에 가서 축원을 하는 경우와 길일을 택하고 마을의 주민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출하고 금기조건을 지킨 다음 정결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다.

동령마을의 용왕제는 약 400여년 동안 마을의 중앙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거행하는데, 예전에는 이 우물을 마을 전체가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어 샘고사는 형식적으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동령마을의 용왕제는 아직도 전통의 맥을 잇고 있어서 이 마을의 샘곳이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줄다리기는 짚으로 꼬아 만든 줄을 서로 잡아당겨 이긴 편이 풍년을 차지한다는 기원성 민속이다.

동국세시기의 상원조에 보면 '충청도 풍속에 햇불싸움이 있다. 또 동네별로 편을 갈라 동아줄을 힘껏 잡아 당기는데 이것을 줄싸움이라고 하여 줄싸움에서 줄을 끌어 간 편이 이기는 것이며, 그 동네가 풍년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보고 옛날에는 혈하회라고 했는데 즉, 지금의 줄다리기이다. 경기지방 풍속도 이와 같으며 승려들도 이 놀이를 한다고 기록하였다.

줄다리기는 옛 문헌에 보면 색전, 발하회, 혈하회, 색희조리회, 갈전등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개 정월 보름께 당기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5월 단오나 8월 한가위 등에도 당겼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당겨졌다.

줄을 당기는 방법이나 그 기원적 사고는 고장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느곳에서는 줄을 당긴 후에 그 줄을 끊어 삶아 먹으면 질병이 물러가고 아들을 낳는다고도 하고, 자른 줄을 대문애다 걸어 놓으면 방액이 된다고도 한다.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에서는 줄을 당긴 후에 그 줄을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은

액송기를 꽂아 놓아 줄을 얼어붙은 강에 갖다 놓으면 얼었던 강물이 풀려 줄이 떠내려 갈때 액이 방지된다고도 하고, 용인지방에서는 줄을 당기고 난 후 마을의 입구에 있는 장승에 걸어 놓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보를 막거나 퇴비로 이용하여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줄은 대개 암.수로 나누어, 암줄은 여자와 과 아이들이 당기고, 숫줄은 남자들이 당기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며, 이는 여자가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줄은 외줄과 쌍줄이 있으며, 외줄은 길이 20~30cm에 굵기 5~10cm정도로 꼬아 가운데를 표시하고 당기게 되어있으며, 산간지방이나 도서지방 등 좁은 지역에서 주로 당기게 되고, 쌍줄은 암.숫줄로 구분하여 한편의 길이를 20~100m 정도가 되는 등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쌍줄의 경우에는 한편의 길이가 30~40m정도이며, 용목의 지름이 60~100Cm쯤 되고 원줄에 곁줄을 묶어 그곳에 사람들이 매달려 줄을 당기게 된다.

송탄의 줄다리기는 20여년 전만 하여도 서정리, 가재리, 지장, 건지마을 등 거의 모든 마을에서 있었으며, 이충동 동령마을이나 도일리, 상리 등에서는 아직도 줄을 당기고 있다.

현재는 동령마을의 줄다리가 제일 큰 것으로 정월 보름이나 16일중 보름달이 뜨는 날에 당기고 있는데, 줄다리가 광복전에 중단된 이유는 이제 강점기에 줄을 당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민족봉기를 할 우려가 있고, 2~3일 씩 줄다리에 소일하다 보면 노동력의 동원이 어려우며 정신적인 결속으로 인해 지배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등 문화말살정책을 펴면서 줄다리기도 많이 금지되었다.

동령마을은 정월의 용왕제와 줄다리기, 달 집태우기 등 각종 놀이가 연희되고 전승되는 곳으로써 작금에 이르러서 점차 젊은 계층의 참여가 줄어들고, 이제 서서히 시로서의 정신적 사고로 인해 전통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 모든 민속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놀이마당으로 구성해 젊은이들에게 우리민속의 우수함과 상부상조의 미덕이나 놀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신이나 경노효친 등을 일깨워, 민속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값진 문화유산임을 알려주고 서구의 놀이가 개인적 이기주의에서 발생하다면 우리의 전통 민속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집됨을 몸소 익히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더욱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소재의 빈곤이나, 전문가의 참여결여로 인해 변질되고 윤색된다는 우려가 잦은데 비해 송탄시 동령의 민속은 아직도 연희가 되고있어 그 역사적인 가치와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한바탕 축제로 베풀어진다는 점을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

### 3. 구 성

#### 1) 인원 편성

배역	인원	복색
촌장	1	정차관, 도포
대기	1	고깔, 등걸잠방이, 더거리, 짚신
마을기	10	전립(병거지) "
제관	1	갓이나 건, 도포
축관	1	"

배역	인원	복색
남광대	1	신랑의 복색
여광대	1	신부의 복색
식	4	부포상, 등걸잠방이, 더거리, 짚신
복	4	고깔, 등걸잠방이, 더거리, 짚신
징	4	"
장구	4	"
마을주민(남)	60	등걸잠방이, 머리띠, 짚신
마을주민(여)	60	흰저고리, 검정치마, 머릿수건, 짚신
마을주민(아이)	10	아이들이 입을 치마저고리나 바지저고리
계	162	

※ 인원은 필요에 따라 더할수도 뺄수도있다. 새납은 인원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2) 소도구

품목	수량	비고
대기	1	흰바탕에 동령삼재 줄다리기라고 쓰기
마을기	5	동령근처의 자연마을명을 쓰기 (장안, 막곡, 이충, 방예, 석정)
농악기	각4	징, 북, 팽가리, 장고 각4점씩
부포상	4	농악의 팽가리가 쓴다
고깔	12	징, 북, 장고가 쓴다
전립	10	마을 기수가 쓴다.
더거리	27	기수와 농악대가 입는다.
등걸잠방이	87	농악과 기수, 마을주민이 입는다
치마저고리	60	마을 주민(여자)가 입는다
삼색띠	27	기수와 농악대가 사용

※ 아이들이나 제관, 축관 등은 평소에 입을 옷으로 대신한다. 외에 우물의 모양

과달집, 줄등이 있어야 한다. 새납도 인 원구성이 있으면 추가한다. 샘곳에 쓰이는 제물은 별도로 준비한다.

#### 4. 줄거리

##### 1) 연희방법

본 동령샘제 줄다리기의 연희방법은 이층동 동령마을에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용왕굿이나 줄다리기 등 각종 민속과 주변의 여러 마을(송탄시)에서 전해지던 놀이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민속은 본시 '백리부동풍'이라고 하여 마을마다 시기나 연희방법, 그 무속적 사고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같은 생활여건과 사회적환경 또한 이제는 송탄시라는 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한 장소에서 연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시 그 연희시기가 정월 초진일과 대보름으로 분산 연희가 되었으나, 전승민속의 재현에 따라 구조상 이유로 함께 연희하도록 구성하였음을 알려준다.

##### 1) 준 비

정해진 장소의 좌측에는 용왕제를 올릴 샘을 준비해 놓고, 샘의 주위에는 오방기를 꽂고 금줄을 친 다음 반대편에는 달집을 세워 놓는다. 달집은 안에 굵기 5cm정도의 나무를 높이 2m정도가 되게 10여개 묶어 원추형이 되게 한 다음 그 위를 칩으로 엮어서 결을 두른다. 달집의 위에는 '방액'이라고 쓴 기를 세운다.

이 기는 높이 80cm정도이 기의 넓이는 50cm정도가 되게 만들어 꽂는다.

##### 2) 입 장

선두에 대기를 세우고 마을기와 농악춘장, 암.숫줄의 순으로 연희장으로 입장한 연희대 일행은 본부석 앞에 서서 인사가락을 쳐 인사한 후 좌, 우로 갈라져 연희장 밖으로 퇴장하면 샘곳을 드릴 제관 일행은 우물로 가고, 부녀자 중에서 몇 사람은 가정의 개인치성을 드리기 위해 샘 앞으로 가서 제물을 진설한다.

그 동안에 암.숫줄은 좌, 우로 갈라져서 정해진 자리에 줄을 놓는다. 입장할 때나, 연희장 밖으로 나갈 때는 삼채 장단을 치며, 남.여 광대는 줄 위에 타고 나갈 때는 한번씩 마당 돌림을 하고 나간다.

##### 3) 용왕제

샘 앞에 제물이 진설되면 먼저 제관과 축관이 연신-헌작을 한 후에 축문을 읽고, 다시 배례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집집마다 올리게 되는데 재현시는 4-5장만 올리면서 마을에서 하는데로 각자 그 상황에 맞게 덕담을 하면서 올린다.

환자가 있는 집안에는 병이 완쾌되기를 축원하고, 농사를 짓는 집이면 풍농을 축원하며, 가축을 키우는 집이면 종축번식이 되길 기원한 후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우물에 넣는다.

용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을의 부녀자들도 함께 비손을 하고 있다가 소지를 올릴 때는 각자 집안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제주가 먼저 우물에 물을 길면서 아내들이 앞다투어 "용알을 뜨러가자"고 하면서 샘으로 가서 물을 길는다.

제물 : 소머리, 다시마(1울), 북어포(3마리), 대추(1되), 밤(2되), 창호지

(10장), 꽃감(6꼬치), 두부, 동태, 백설기, 막걸리 등

#### 4) 달맞이, 달집 태우기

용왕제가 진행되는 동안 사물과 마을의 주민들은 달집 주위에 모여 있다가 용왕제가 끝나면 한 사람이 “만월이요”하고 외치면 모두가 “만월이요”를 따라 외치며 기원을 한다.

예로부터 달맞이는 그 해의 운세를 점치는 방법으로도 사용한다. 정월 대보름에 달이 떠오르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그 해에 소원을 풀다고 하는데 총각이 먼저 보면 장가를 가고, 처녀가 먼저보면 시집을 가며, 환자가 보면 병이 완쾌되고, 임신부가 먼저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다.

또한, 달이 북쪽으로 치우치면 두메가 풍년이 들고 남쪽으로 치우치면 평지와 어촌이 풍요롭다고 했으며 달이 너무 붉으면 물이 범람하고, 달이 너무 희면 가뭄이 든다고 하여서 보름달을 갖고 그길흉의 점을 치기도 했다.

농약의 인도로 달집 주위를 돌다가 달집에 불이 붙어 타오르면 삼채 장단에 맞추어 각자 춤을 추며 달집 주위를 돌면서 흥을 고조시킨다.

아이들이 모여서 쥐불놀이를 하는데 함께 모여서 뛰던 연후대는 각자농약의 인도로 줄로 향한다.

#### 5) 줄놀이

달맞이를 하고 달집 주위를 돌다가 암, 숫줄로 나누어진 연희대 일행은 각각 편장의 인솔로(편장은 줄 위에 타는 남여 광대로 암줄의 위에는 여장을 한 광대(남자)가 오른다.) 줄을 메고 연희장의 중앙으로 줄을 당기러 나온다.

중앙으로 나오던 연희대는 서로 줄을 엇갈려 가기도 하고, 암줄의 뒤를 따라 숫줄이 쫓아 다니는데 숫줄에서는 “용 잡으러 가자”고 외치고, 암줄에서는 “용잡자, 용잡자”하고 서로 합성을 지른다.

농약은 삼채장단을 치면서 줄의 앞에서 줄을 인도하고 편장이 술량수를 부르면 크게 대답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기를 제압하기 위해 마당놀이를 펼친다.

#### 6) 줄다리기

양편의 줄이 마당놀이를 하다가 중앙에 와서 만나면 줄을 내려 놓고 숫줄의 용두를 암줄의 용두 안으로 끼운 다음 빠지지 않게 장목을 끼운다.

장목을 끼우고 나면 원줄에 묶은 결줄에 매달려 촌장의 신호에 의해서 줄을 당기게 되고, 서로가 합성을 지르고, 농약은 삼채와 일채로 몰아쳐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줄은 세 번을 당기게 되는데 암줄이 두 번을 이겨서 풍년을 기원한다.

줄을 당길때는 한쪽 편이 어느 정해진 선을 넘어가면 촌장의 지시에 의해서 중단을 하는데, 시작할 때는 촌장의 지시에 따라 징을 한번 치고 끝날 때는 세 번을 친다.

양편의 농약과 마을기 등은 줄다리기를 하는 옆에서 원을 그리며 일채를 치면서 돌다가 한쪽 줄이 이기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춘다.

#### 7) 뒷풀이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면 양편의 연희대가 서로 줄을 메고 장단에 맞추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원을 만들어 돌다가 대열을 정비하여 본부석 앞으로 나와 인사하고 양편으로 나누어져 퇴장한다.

# 평택농악놀이

## 1. 전승지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 2. 유래 및 해설

오늘날 충청해서 농악이라고 쓰이고 있는 말은 본래 풍장, 매구, 굿, 걸립, 걸궁등으로

불리어 왔다. 농악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농악은 크게 웃다리 농악(경기, 충청지역), 전라남도 농악, 전라좌도 농악, 영남농악, 영동농악등으로 나누어 진다.

평택지방은 드넓은 벌판은 배경으로 농업의 발전과 함께 두레농악이 발달하는 한편, 유랑연희패에 의한 연희농악도 성행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근의



안성, 화성, 천안등과 함께 농악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오던 중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으면서 명실공히 웃다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웃다리가락은 대체로 빠르고 힘이 있고 가락이 분명하며 비교적 쇠가락이 발달한 것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

대개의 농악에서 중심을 이루는 판굿은 보통 30여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두레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회적수가 따르며, 그 뒤로 쇠, 징, 장고, 북, 벽구, 무동 등이 이어진다. 상쇠가 이끄는 대로, 인사굿으로 시작하여 20여가지 진풀이를 일사불란하게 보여주는 평택농악은 그 제의성, 연희성들이 고루 갖추어진 규모있는 판제라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무동놀이를 꼽을 수 있는데 삼무동, 오무동 등 손에 땀을 쥐게하는 화려한 무동놀이는 평택농악만의 자랑이라고 하겠다.

### 3. 줄거리

#### 1) 앞놀이

##### (1) 길놀이

길놀이는, 본격적인 놀이판을 시작하기 전에 놀이판의 지신을 눌러주어 앞으로의 놀이에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주위의 관객들에게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2) 사방굿

난장 한편에 화려하게 장식된 등대를 높이 세운다. 그리고 등대앞에 돼지머리와 시루떡, 삼색과일등의 제물을 차려놓으면 풍물패가 앞에 늘어서서 풍물을 치며 치성을 드린다. 이어서 등대를 중심으로 주위를 돌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절을 한다.

#### 2) 본놀이

##### (1) 판 굿

- 인사굿 : 놀이마당에 들어가 관객을 향해 동글게 둘러서서 인사를 한다.
- 돌림벽구 : 풍물잡이는 바깥쪽에 원형으로 둘러서서 돌고, 안쪽에는 벽구가 원형으로 둘러서서 가락에 맞춰 벽구를 치다가 모두가 옆뛰기로 끝을 낸다.
- 당산벌림 : 'ㄷ'자형으로 풍물잡이와 무동, 벽구등을 순서대로 벌려 세워놓고, 상쇠가 북판에 나와 상쇠놀이를 한 뒤 제자리로 돌아가면 벽구들이 앞으로 나와 양상, 허튼상등 여러가지 벽구놀이를 한다.
- 오방진 : 놀이마당의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을 각각 돌아다니면서 상쇠를 중심에 두고 원형으로 겹겹이 돌다가 다시 풀어주는 것을 되풀이하며 마지막 중앙에서 진을 만들어 오방진을 완성한다.
- 당산벌림(절구땡이 벽구) : 풍물패가 다시 'ㄷ'자형으로 벌려서면 상쇠가 먼저 무동을 끌고 들어와 놀리고, 다음에는 벽구를 끌고 들어와 논다. 상쇠가 들어가고 나면 벽구만 남아서 놀다가 외줄로 들어와 앉을 차비를 하고 다음에는 쌍줄로 들어와서 마치 절구로 방아를 찧는 것과 같이 왼쪽 오른쪽이 번갈아서 앉았다 일어난 것을 반복한다.
- 사통백이 : 동서남북 사랑에 'ㅁ'자형으로 서서 풍물잡이와 무동이 먼저 교차하고 다음에는 벽구와 벽구가 엇갈려 지나가는 놀이를 하다가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나누어져 4개의 원을 만들어 놀



다가 진을 푼다.

- 돌림 좌우치기 : 전원이 외줄 원형을 만 들어 서서 우로 3보, 좌로 3보, 앞으로 3보, 뒤로 3보, 옮겨가며 가락을 친다.
- 합동 좌우치기 : 상쇠를 앞에두고 4열 종대로 서는데, 사물잡이는 오른쪽에 한줄로 서고, 그 옆에 벽구가 두줄로 서고, 옆에는 무동이 한줄로 서서 우로 3보, 좌로 3보, 뒤로 3보, 앞으로 3보 옮겨가며 가락을 친다.
- 가새벌림 : 잭이 전체가 외줄 원형으로 서서 돌다가 벽구가 풍물잡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원형으로 돌다가 원을 풀어낸다.
- 연풍대(찍찍이춤) : 잭이 전체가 외줄 원형으로 서서 연풍대 가락에 맞추어 무동끼끼춤을 춘다.
- 무동놀이 : 잭이는 풍물을 치는 가운데 벽구가 어깨에 무동을 얹어놓고 춤을 추며 놀다가 사미를 돌아가며 배분해 주면 받아서 춤을 추다가 동니받기, 던질사위, 삼무동, 곡마단, 농고리, 앞뒤곤두등의 놀이를 하는 것으로 판굿의 절정을 이룬다.
- 열두발 상모 : 마당씻기에 해당하는 놀이판으로 채상잡이가 열두발 상모를 쓰고 나와, 서서 돌리기, 앉아서 돌리기, 누워서 돌리기, 자반 뒤집기등의 재주를 부리며 돌린다.
- 인사굿 : 마지막 놀이판으로 풍물패 전원이 다시 원형으로 둘러서서 돌다가 관중을 향해 인사를 한다.

### 3) 뒷풀이

풍물패와 관중이 모두 놀이판에 나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논다.

보여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동굿인 것이다.

# 평택고리두레박놀이에 논매는 상사대소리

## 1. 전승지

평택시 소사벌

## 2. 유래 및 해설

옛부터 평택군은 소사벌이라는 넓은 들이 있어 쌀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곡창지대이므로 농사철에는 마른논에 급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용두레, 타래박, 고리두레박 등이 필수의 농기구로써 많이 사용 되어 왔다.

지금은 수리안전담 93%를 자랑하는 농업 선진지로 발전하여 하나의 추억으로 잊혀져가는 농기구이며 풍습이기에 보존하고 재현해야할 중요성을 갖는다.

아울러 용두레나 타래박은 혼자 사용하는 기구임에 반하여 고리두레박은 부부간, 부자간에 대화를 하면서 하는 기구이다보니 화합과 협조를 필요로 하기에, 협동심을 일깨우는 데도 일익을 한 것이다. 또 둘이 하는 기구이기에 힘이 덜 들고 능률이 많아 밤늦게 까지나 밤을 새워 가

면서물을 풀수가 있으니 바쁜 농사철에는 어느 기구보다 소중하였으며, 어떤 민속놀이든 신앙적 근원이 없이 유래된 것이 없겠지만 농사일 또한 모를 낸 후에 자신과 하나님께 풍년을 기원하는 관습을 오늘에 재현코자 고리두레박놀이와 풍년을 기원하는 농요 그리고 힘든 농사일을 쉽게 하려는 매김 소리를 병행한 놀이 문화이기에 고증을 거쳐 소개하고자 한다.

## 3. 구 성

### 1) 줄거리

#### (1) 두레패 입장



평택군의 고유 민속농악인 고리두레박놀이  
에 김매는 상사대소리의 농기를 선두로 농악  
팀과 지계를 짚어진 농부들, 도랭이를 등에  
멘 농부, 머리에 짐을 얹은 아낙네들이 농악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입장한다.

### (2) 모내기

모찌기가 끝난후 모줄을 사용하면서 이양  
요(모낼때의 농요)를 부르며 모내기를 한다.

### (3) 고리두레박 물푸기

갈수기에 못자리 또는 본답에 물을 대주는  
작업으로서 고리두레박을 사용 부부, 부자,  
형제, 이웃간 2인 1조가 되어 전통 농요에  
맞추어 우물(방죽)에서 물을 퍼 올리는 물대  
기 작업과정이다.

### (3) 김매기

모심기 작업이 끝나면 호미로 애벌김을 매  
는 작업으로서 전통농요에 맞추어 일명 품앗  
이 형태로 돌아 가면서 실시한다.

### (4) 논 흙치기

첫번째 애벌김 실시 후 호미없이 논바닥에  
난 풀들을 뽑아 흙치는 작업이다.

### (5) 풍년 기원제 및 농악한마당 잔치

김매기와 논흙치기 작업이 끝난후 차려온  
음식으로 고시례를 한후 참과 농주를 들면서  
선소리꾼의 장단에 맞추어 풍년을 기원하며  
드리는 들놀이로 농부와 참을 나르던 아낙네  
와 농악단이 한데 어울어져 농악단의 장단에  
맞추어 농사에 고달팠던 피로를 말끔히 씻고  
한마당 농악잔치를 벌이게 된다.

## 4. 놀이에 등장하는 농요

### 평택이양요 (모낼 때)

녹양방초 저먼날에 석양풍이 건듯불어  
호미메고 입장구이 석양풍이 건듯불어

여봐라 농부야 말들어라

일락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이 솟아  
어- 헤- 이루 상사피아 봄에밭갈아 씨뿌린후  
우수풍조고 제일이라돌아왔네 춘하추동 사시순화는  
우리농부 위함이라

천지조종은 고른이요 수의 조종은 황해수

비행기 조종은 안창남 자전거 조종은 엄복동  
기생의 조종은 평양기생 대감조종은 오념대감  
농군의 조종은 이녀석인데 매일장춘 술안먹고  
하다는 소리가 노래로다

## 5. 출연진

총지휘	이민조
정수	김진용, 김원경
벽구	김진홍, 공상덕, 신형식, 박만환, 송희준 송재성, 박재만, 황중준
장고	박국환, 염영석, 이재호
북수	이병만, 김금자, 이민형, 한동우
부쇠선소리	유정묵
호적	이민대, 최기학
종쇠	서보원
농부	최진용, 김일환, 봉화룡, 홍선기, 홍성철 이계용, 이지현, 이재명, 이희순, 이숙형 김옥경, 민병희, 김경희, 이영자, 최수자 인광희, 박옥재, 기은호, 김점순, 박광숙 이옥희, 최승렬, 이은숙, 박미숙, 박장호 최순식, 강순호, 양만길
아낙네	박명옥, 임순례, 이정녀, 문정숙, 임순임 김춘심, 최성연, 한영수, 정진숙, 정은영